

### 간호사 지속 근무환경 마련 연속 정책간담회

(1면서 계속)

이어 “장기근속 수단, 방법 및 야간근무 수단 차별화, 경력 수당 등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교대근무자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임금을 개선한다”면서 “주간·오후·야간전담제, 단시간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방한근무 중 1시간 휴식 의무화, 야간전담간호사 활용, 저녁식사를 부사로 배당해주기 등을 정착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간호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간호현장 만들기, 긍정적인 간호문화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병원의 간호사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료계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수가 현실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차지영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태움,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 등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성차별적 문화, 의료계의 수직적 권력관계, 성폭력에 민감하지 않은 조직문화 등이 직장 내 성폭력을 증가시키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고(신고)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전문직단체 간 협업을 통해 예방 및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스스로 안전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정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민혜진 보건의료노조 을지대 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간호사)은 “병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간호사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두 차례 암 진단과 치료를 받는 동안 제대로 병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이 화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병원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이라는 선택을 했던 것은 단지 임금 인상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환자를 버리고 나온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면서 “간호사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모성보호, 이직률 낮추기 등을 위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을지대병원과 을지병원 노사는 조직문화 개선,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지난 11월 25일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47일째 계속된 파업이 종료됐다.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여성인권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기관의 임신·출산·육아 휴직, 임신부 야간근로 등의 각서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 2016년 11월 14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의료기관 내 모성보호제도 준수 강화,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보건·의료인 인식개선 교육까지 여성종사자를 둘러싼 제도 및 정책적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권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신찬옥 매일경제 기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해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는 병원의 상황을 취재하

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기릴 수 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이미지도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불법적인 PA (Physician Assistant)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간호사 고유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순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호사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선 철저히 들여다 보겠으며, 간호사인권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간호협회와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현재 마련하고 있는 간호인력수급 종합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이 정당하게 일하고 직책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종합병원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선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병원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병원에게 전반에 대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을 내년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미디어 속 지나친 음주장면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질주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음주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방송사별 드라마 및 예능프로그램을 모니

터링한 결과 지상파와 케이블, 종편 등을 포함해 평균 회당 1.03회 음주장면이 등장했다. 예능프로그램에는 평균 회당 0.98회 음주 관련 발언이 나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음주장면 최소화 △음주에 대한 긍정적 묘사 피하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음주 장면은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히 묘사 △폭음·만취 등 해로운 음주행동 묘사 삼가기 등 10가지 권고 내용이 담겼다.

오세정 기자 sjph@

### 연세대 김모임간호학연구소 ‘간호의 미래역할’ 워크숍

연세대 간호대학 김모임간호학연구소(소장 오의금)는 2017년도 전국 간호학연구소장 및 학(과)장 워크숍을 ‘간호의 미래역할과 발전방안’ 주제로 11월 28일 개최했다.



아 한다”고 말했다.

주디스 새미안 전 국제간호협회(ICN) 회장이 ‘간호전문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특강을 통해 “간호가 미래 보건·의료환경과 글로벌 이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동하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간호전문직으로서 간호영역을 넘어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미쳐

이어 오의금 소장이 김모임간호학연구소가 실시한 ‘미래 보건의료환경변화에 따른 한국간호 발전전략’ 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의견을 나누며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장이 축사를 했으며, 김모임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

### 정신간호사회 ‘사람 돌봄 이론과 정신간호’ 학술대회

정신간호사회(회장 박경덕)는 김수지 명예교수 추모 1주기를 기념해 ‘사람 돌봄 이론과 정신간호’ 주제 학술대회를 11월 23일 개최했다.

김수지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는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지역정신보건사업 모델 구축 등 정신간호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특히 ‘사람 돌봄(Interspersonal Caring)’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지역사회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힘썼다.

사람 돌봄 이론은 좋은 돌봄의 속성을 10개 범주로 도출한 것이다. 알아봐줌, 동참, 공유함, 경청함, 동행함, 칭찬함, 인위 제공함, 희망 불어넣음, 용서함, 수용함 등으로 도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광자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가 ‘사람 돌봄과 정신건강’ 주제로 강연했다. 사람 돌봄과 정신재활간호 사업,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지역사회정신간호 등 강연이 진행됐다.

박경덕 회장은 “간호계의 큰 빛이었던 김수지 교수님을 기리며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과 간호정신을 계승하는 데 힘쓰자”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 ‘경북도뚝손봉사단’ 재능기부 봉사활동

경북지역 퇴직 보건진료소장들로 구성된 경북도뚝손봉사단(회장 정해인)은 군위군 백송한마음요양원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11월 25일 펼쳤다.



이날 봉사단 회원 3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손마사지를 해드렸다. 말벗이 되어드리며 마음과 마음을 나눴다. 50만원 상당의 기저귀와 휴지를 전달했다.

정해인 회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해온 보건진료소장들이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간호사의 재능을 나

눌 수 있어 보람되다”면서 “회원들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뚝손봉사단은 경북지역의 퇴직 보건진료소장들로 구성됐으며, 2016년 4월 23일 발족했다. 그동안 구미, 경산, 포항, 안동, 상주, 군위 등 도내 지역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이 6번째 봉사활동이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예술의전당 무대에 쓰러진 피아니스트 살려

서혜경 경북대병원 간호사,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

공연 중에 무대 위에서 쓰러진 피아니스트를 심폐소생술로 살린 간호사의 신원이 뒤늦게 밝혀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서혜경 경북대병원 간호사로 대구시간호사회 회원이다.



근무하고 있다.

서혜경 간호사는 지난 10월 17일 오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서울레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고 있었다. 연주를 마친 피아니스트 김용배 추계예술대 교수가 갑자기 무대 위에서 쓰러졌다.

곧바로 내과전문의 김진용 씨가 무대 위로 뛰어올라왔고, 뒤이어 의사와 간호사라고 밝힌 관객 두 명이 더 올라와 함께 심폐소생술을 계속했다.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신속하게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사용됐다. 김용배 교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건강을 회복했다.

심폐소생술을 마친 간호사는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공연장을 떠났다. 이후 예술의전당 측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면 간호사를 찾겠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화제의 주인공으로 밝혀진 서혜경 간호사는 대구한의대 간호학과를 졸업했으며, 2016년 경북대병원에서 임사해 607병동에서

서혜경 간호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쓰러지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저도 모르게 이미 몸이 반응해 무대 쪽으로 뛰어어나고 있었다”면서 “혼신을 계속했다. 예술의전당 직원들이 신속하게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AED)도 사용됐다. 김용배 교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 건강을 회복했다.”

이어 “신입간호사 때 원내에서 열린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에 참여하면서 시나리오를 직접 짜보고 집중적으로 훈련한 경험, 최근에 심폐소생술 재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서혜경 간호사는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한 공로로 예술의전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상도 받게 됐으며, 시상식은 12월 중 열린다. 정규숙 기자 kschung@

###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학술대회 개최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설미이)는 학술대회를 ‘Patient Centered Care by APN’ 주제로 11월 11일 개최했다.



제1부 연구발표 시간에는 각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주도로 진행된 연구 6편의 결과를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2부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성과지표’ 주제로 송라운 충남대 간호대학 교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환자중심간호’ 주제로 김지원 서울아이스즈요양병원장이 강연했

다. 전문간호사들의 핫이슈인 성과지표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규숙 기자 kschung@

<b>간호사신문</b>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04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FAX (02)2260-2579	
koreanurse.or.kr	특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 수동으로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

수동혈압계가 정확하지만 귀찮아서 자동혈압계를 사용 하셨다면 이젠, [자동공기주입기]로 고민 끝 !!

호환 가능한 모델 : 수은혈압계, 메타식혈압계 외 다양한 수동식 혈압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주) 테크인터내셔널  
 본사 : 40-76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529-7  
 직영점 : 702-882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동 682-15  
 Tel : 053-588-4070 Fax : 053-588-4074

상담전화 : 010-5266-0523

# 고려수지침강

## 수지침작

저자 유태우 / 4x6배판 / 508페이지 / 정가 80,000원(판매가 60,000원)

— 고려수지침 발견 40주년 기념 특가 실시 —  
**안전하게 질병을 낮게 하는 방법입니다**  
**노인성 질병 관리에 특히 우수합니다.**

영어·일본어·독일어 등 9개 국어로 번역,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제3의학입니다

제137권

최신 개정판  
**고려수지침강작**  
 (高麗手指鍼法 第137編)

고려수지침으로 간단한 질환에서부터 중증의 질환까지 질병을 낮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와 가정의 질환! 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본서 구입 후 읽어 보고 이해 되지 않으면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우면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검색창에서 '고려수지침'을 다룬분야 확인 바랍니다.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www.seokeum.com / www.soojichim.com ※ 전국 160개 지점을 이용합니다.

### 2017년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4차 재공고

대한간호협회는 2017년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팀을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전문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눈, 귀, 코의 건강문제와 간호	혈액·조혈기계의 건강문제와 간호
	간, 담도, 췌장의 내·외과적 치료와 간호	
개 발 비	8시간 기준 3,000만원(VAT 포함)	

※ 주제별 단일 응모팀 접수 시 해당 팀은 유찰 처리함

- 참가방법 : 개발자는 여러 주제에 대해 중복 지원이 불가함
- 개발책임자 신청자격
  - 1) 간호계 : 대한간호협회 등록회원에 한함
    - 간호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의료기관 소속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팀장급 이상)
  - 2) 비간호계(의료인) : 간호계 1인이 공동개발책임자로 구성되어야 함
    - 의과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 제출서류 : 온라인 간호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신청서,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신청마감 : 2017년 12월 18일(월), 이메일 도착분(서명날인 기재)
- 제 출 처 : eduson@koreanurse.or.kr(02-2206-1913)

※ 자세한 사항은 KNA에듀센터 홈페이지(edu.kna.or.kr) 참고